

'93 제1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설천농장



취재 : 정진영 기자

'93년도 본회 제1검정소에서 시행한 중돈능력검정에서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설천농장.

설천농장(대표: 박한용)은 지난 1년간 제1검정소에 중돈 142두를 출품하였고, 이중 94두가 검정에 합격해 합격률 66.2%를 기록했다. 출품두수중 7두가 챔피언돈에 선정되었으며 출품돈의 평균 선발지수는 226점이었다.

챔피언돈 출품횟수, 출품두수, 선발지수, 합격률, 합격두수를 종합해 평가한 종합점수는 203.2점으로 활천농장과 경기

양돈에 이어 3위로 우수농장에 선정됐다.

'83년에 비육돈농장으로 양돈을 시작한 박한용 사장은 중돈의 개량에 유달리 관심을 갖고 '86년부터 중돈농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중돈업체 등록이 여러가지 이유로 늦어 본회 제1검정소에는 '92년 11월 처음으로 출품, 챔피언돈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14번의 챔피언돈을 출품하였다.

설천농장은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 등 백색계통의 순종만

사육하는 전문중돈장으로 순종모든은 220두 규모이며 품종별 비율은 50:50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돈은 모두 영국계통만 수입하고 있다.

중돈의 분양가격은 90~100kg 사이의 대요크셔 수컷이 42만원, 암컷은 37만원, 랜드레이스는 암·수 모두 37만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월 100~110두 정도가 분양된다. 특히 설천농장에서는 수태지 무상 서비스-분양두수를 누계 관리하여 암·수에 관계없이 30두가 될 때마다 능력검정소 챔피언급에

해당되는 A급 능력의 수태지 종돈 1두를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30두를 제외한 나머지 두수를 계속 누적관리함-의 실시로 철저한 A/S 및 우수한 종돈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돈은 순종돈이 70%, F₁이 30%의 비율로 분양되고 있다.

돈사규모는 총 6개동으로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어서 올인-올아웃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돈사가 완공되면 올인-올아웃이 완전히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신축하는 돈사는 모두 슬러리방식을 채택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며, 6월말에 1

동이 완공되고 나머지 2동은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돈사의 신축으로 인하여 내년 부터는 사육두수를 4,000두 규모로 높이고 체계적인 종돈의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또한 축산분뇨처리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박한용 사장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100% 돈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3월말에 발효건조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다.

우수종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체 인공수정시설을 갖추고 종돈의 정액채취에서 정자수 검사, 희석, 인공수정용액

상정액을 제조하여 자체 농장에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농장에서도 구입을 원하고 있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자체 순종계통은 유지하면서 F₁ 모돈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며, 신축돈사가 모두 완공되면 월 70~80두 규모의 농장검정을 실시하여 종돈개량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한용 사장은 앞으로 보다 우수한 종돈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의 돈군규모를 모돈 220두에서 600두 규모로 늘리는 한편 모돈 100두 규모의 GP농장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종돈 생산 부문과 판매 및 A/S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종돈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UR의 타결로 이제우리의 양돈산업도 선진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설천농장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종돈개량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본다. **■**

